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의정활동을 듣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강 후 의원 인터뷰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 강 후 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前 제35대 대한석탄공사 사장
- 前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경제협력국장
- 前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Q** 의원님께서 에너지·자원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 에너지·자원분야변동 전망과 앞으로 우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최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셰일 가스가 세계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층인 셰일 층에 존재하는 메탄가스로서 셰일가스의 채굴기술 발전으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셰일가스는 기존 천연가스 매장량과 비슷해 전 세계가 향후 60년간 사용 가능한 매장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 미비와 부족한 투자 재원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셰일가스를 채굴하는 데 직접 투자하거나, 가스 개발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개발·생산한다면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수출 이후, 가시적 성과가 없는 한국형 원자력 수출에도 박차를 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Q** 우리 전력산업과 관련된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력산업에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은 스마트그리드, ESS, 풍력, 태양광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저탄소, 고효율,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성과 경제성 완성단계까지는 원자력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초 빌 게이츠가 방한시 “미래에 인류에너지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으며 CO<sub>2</sub>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며, 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이면 한국의 원전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받은 것”이라며 빌게이츠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요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기후 여건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이 커 수급자원으로서 기여도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에너지믹스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 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벨게이즈가 우리나라와 공동개발하고자하는 차세대 원전인 진행파원자로(TWR)가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도 현재 원자로부터 훨씬 개선된다면 아주 좋은 미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Q** 의원님께서서는 전력산업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정적 전력수급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력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원전 부품비리 사건으로 인한 전력 수급비상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원전 비리가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전산업 전반에 걸쳐 특정 소수 세력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된 데 따라 발생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인적쇄신 등을 포함하는 일명 '원전 마피아 방지법'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법안은 원전비리, 원전정지 등 일련의 사태가 인재(人災)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인적쇄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으며, 더 이상 원전 비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전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정직급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공개 의무화와 관련 업계 이직 제한, 원자력 전문 인력을 관리·감독하는 별도기구 설치, 원전부품 인증을 민간업체에서 국가전문기관으로 이양, 원전 비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시는 이런 부정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원전에 대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전력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Q** 의원님의 인생의 좌우명과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걸려 넘어지면 돌부리고, 넘어서면 돌다리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궁극엔 성공하라!」의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강원도 원주

시골마을의 농가에서 태어나 중

양부처 관료를 거쳐 국회의원이 되

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마주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극복해 왔고 이

자리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준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원주 발전을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에 옮기는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여 간 쌓은 경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원주 혁신·기업도시를 조기 활성화하고, 또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이 저의 일이자 목표입니다. 반드시 원주를 중부내륙의 50만 중심도시로 도약시켜 행복도시·미래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00만 전기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 것도 전기 산업의 발전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기는 국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근간산업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 공기와 물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은 전기산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주물량의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경영합리화를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및 新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기인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산업계 산·학·연이 미래시장을 선도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전력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욱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